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춤추는 방망이’ KIA 어쩌다 이지경…

잘나가던 방망이 식어

1위에서 중위권 추락

부상과 부진으로 KIA 타순이 춤추고 있다.

잘 나가던 KIA는 방망이가 식으면서 험난한 5월을 보냈다. 9승14패를 거두는 데 그치면서 1위에서 추락, 4위 자리를 맴도는 처지가 됐다.

4월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방망이가 식으면서 KIA의 1위 싸움의 분위기도 식었다.

무뎌진 톱타자 이용규, 오르락내리락 하는 타선의 핵 이범호·최희섭, 2군행까지 자처했던 안치홍 등 주축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5월이 허무하게 흘러버렸다.

결국 1일에는 톱타자 이용규가 9번 자리로 내려앉았다. 2010년 6월27일 이후 1070일 만에 9번 타순에 선 것이다.

이용규의 부진과 맞물려 김주찬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경기 만에 2번 자리에 등장했다.

김주찬의 타석 복귀는 KIA 입장에서는 반갑지 만은 않은 자화상이다. 손목 골절로 재활을 해왔던 김주찬은 지난달 31일 1군에 복귀했다. 이날 함평에서 열린 SK와의 2군 경기에서 두 차례 타석에 선 것이 전부였지만 복귀를 자처하면서 기동력과 수비강화 차원에서 김주찬을 불러올렸다.

김주찬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수비와 대주자. 복귀 첫날 9회초 대수비로 팬들에게 얼굴을 비쳤던 김주찬은 하지만 다음날인 1일 경기에서는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왔다.

외야에 이용규·김원섭의 부진과 신종길의 부상이 겹치면서 김주찬이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자의 반 타의 반’ 예상을 깨고 복귀 두 경기 만에 스타팅 멤버로 나서게 된 상황은 KIA 타선의 총체적 난국이 반영된 것이다.

선동열 감독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선 감독은 “해 줄 애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김주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일 이용규가 하루 만에 톱타자로 복귀하기는 했지만 최희섭은 벤치를 지키는 등 매일 KIA 타순이 요동치고 있다.

설상가상 부상병이 추가됐다. 2일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나왔던 김원섭이 6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투수 견제 때 베이스를 잘못 밟으면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4주 가량 자리를 비우게 됐다.

첫 타석에서 상대 2루수의 호수비에 묶였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는 등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김원섭의 부상은 아쉽다.

부진한 5월을 보낸 선수단은 2일 삭발을 감행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덕아웃의 새바람이 그라운드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일 오후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 4번 나지완이 1회말 타석에서 LG 리즈의 머리쪽 투구를 피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삭발한 서재응 “LG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놨어”

덕아웃 말말말

▲머리 자르러 가야지=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김선빈, KIA 선수단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2일 경기에 앞서 삭발을 했다.

▲성적만 나오면 나도 깍지=선수들의 삭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선동열 감독, 자발적으로 삭발에 나선 선수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윤)완주가 나를, 나는 (임)준섭이를=홍재호, 라커룸에서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밀어줬다며.

▲LG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서재응이 훈련을 하고 있던 LG 이병규를 향해.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말고 KBO한테 얘기해라=LG 이병규, 서재응이 상승세인 팀들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자.

▲와 득템했어요=이병규로부터 방망이를 받아온 KIA의 신인 포수 이홍구. 이병규 선배의 방망이를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이병규는 장충고-단국대 선배다.

▲너는 모자 쓰고 다녀라=KIA 선수들, 이홍구가 유난히 머리숱이 없다면서.

▲내가 다 치워야죠=선수단 막내 한승혁, 라커룸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였다면서.

▲친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류현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최희섭,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니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보이더라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원하게 야구해보자”

호랑이들 줄줄이 삭발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했다.

LG와의 홈경기가 열린 2일. KIA 선수들은 시원하게 머리를 밀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5월의 부진, 6월 첫 경기에서도 역전패를 당한 선수들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자발적인 삭발 릴레이를 펼친 것이다.

시작에는 포수 차일목이 있었다.

1일 경기가 끝난 후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미팅에서 차일목이 먼저 삭발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차일목은 2일 까까머리가 돼서 경기장에 출근을 했다. 그러자 고참들이 움직였다.

서재응·유동훈·최희섭·김진우 등이 시원하게 머리를 밀겠다며 줄을 서면서 차일목이 이발사로 변신했다. 미용기구는 서재응이 제공했다.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젊은 선수들도 기꺼이 줄을 섰다.

보통 머리로 등장했던 선수들은 훈련이 끝난 뒤 “머리를 자르러 간다”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라커룸으로 향했고 이내 딴 사람이 되어 나왔다. 대기자가 이발사로 앞사람 머리를 밀어주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덕분에 무거웠던 선수단 분위기도 시원해진 머리처럼 한결 가벼워졌다.

삭발 행렬에는 신입 호랑이 송은범·신승현은 물론 부상에서 복귀한 김주찬까지 동참했다. 휴식기를 보내면서 미용실을 다녀왔던 김선빈과 최희섭도 곱게 정리했던 머리를 화끈하게 정리했다.

‘함께 하자’며 정회열 배터리 코치도 선수들에게 머리를 맡기면서 덕아웃에는 삭발자들이 가득 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일 오후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삭발한 KIA 김주찬이 7회말에 3루에 잔루를 기록한 뒤 이닝을 교체하며 수비위치로 나가고 있다.

동성고 왕중왕전 4강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북고에 6-5 역전승

효천고는 준결승 진출 무산

동성고가 왕중왕전 4강 티켓을 따냈다.

동성고가 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67회 황금사자기 8강전에서 김태선의 끝내기 안타로 경북고를 6-5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손에 땀을 쥐는 역전극이었다.

3회 동성고 선발 박규민이 경북고 톱타자 전상혁에게 내야안타를 시작으로 등 5개의 피안타로 4실점을 하며 흔들렸다.

3회 2사에서 정규홍의 솔로포로 1점을 더한 동성고가 7회 상대 실책으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박진수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한 뒤 고수철의 안타가 나오면서 1사 1·3루, 정규홍의 적시타로 2-4를 만든 동성고가 이재무의 희생플라이로 1점차 추격에 성공했다. 이어진 2사 2·3루에서 유격수의 송구실책으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아 5-4 역전에 성공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9회 2사 1·2루에서 경북고 이창형의 적시타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동성고였다. 9회말 정규홍의 기습번트 안타와 방건우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 이재우가 고의사구로 걸어나간 뒤 김태선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승부를 마무리 짓는 득점이 완성됐다.

4회 2사1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방건우는 5.1이닝을 4피안타 3사구 6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동성고는 8일 오후 2시30분 마산고와 결승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한편 순천 효천고는 1일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1-5로 패해 준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드래곤즈 무패 행진 ‘8’에서 마감

K리그 클래식 14R 서울에 0-3 패

챌린지 광주 FC는 수원에 2-1 승

광주 FC가 6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광주 FC가 지난 1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김호남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5월 FA컵 포함 2승2무를 달렸던 광주는 6월 첫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더하며 5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경고누적으로 인한 중앙 수비수 유종현과 윙백 박희성의 공백이 있었지만 광주가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경기 10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미드필더 김은선이 주인공이었다. 루시오가 하프라인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은 김은선이 골키퍼를 넘기는 로빙슛을 터트리며 환호성을 올렸다.

전반 31분 수원의 세트피스에 광주의 골문이 열렸다. 친정팀 상대에 나선 보그단의 머리에서 골이 만들어졌다.

수원의 프리킥 상황에서 김한원이 올려준 볼을 보그단이 머리로 떨어뜨렸다. 이후 박종찬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동점을 허용한 위 수원이 공세를 높이면서 광주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하지만 광주가 후반 28분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역전골을 터트렸다.

수원의 왼쪽 진영을 파고들던 임선영이 중앙으로 공을 넘겼고 김은선이 바로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 있던 김호남에게 찔러줬다. 김호남의 벼락같은 슈팅이 이어지면서 광주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광주 수비진이 실점 없이 수원 공격진을 봉쇄하면서 김호남의 프로데뷔골은 값진 결승골이 됐다. 수비수 김성진과 강민은 프로데뷔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 여범규 감독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서 승리를 거뒀다”며 “(김)호남이가 골 욕심이 많은 선수인데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다. 경기에 앞서 풀타임으로 다 뛰게 해줄 테니까 부담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좋은 골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의 연속 무패 도전은 ‘8’에서 끝났다.

전남 드래곤즈는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경기에서 데얀, 김진규, 윤일록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0-3으로 패했다. 서울의 팀 통산 400승의 희생양이 되면서 8경기 연속 무패행진도 마감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